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·태

- '선거유세 음료테러 자작극 의혹' 前 부산시장 후보자 구속
 - 7.8 언론은 6·3 지방선거 유세 중 음료투척 피습과 관련해 자작극 의혹을 받는 前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공범 1명에 대해 부산지법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
- 파키스탄, 무장단체 연쇄 공격으로 96명 사망
 - 7.09 언론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서 나흘간 보안군과 무장단체 간 3차례 충돌이 발생해 경찰 18명과 보안요원·민간인 등 96명이 사망했으며, 현재도 군의 소탕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
 - ※ 분리주의 무장단체(BLA)와 파키스탄탈레반(TTP)의 공격이 지속되면서 남아시아 지역의 치안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부언
- 韓, 진화하는 AI 드론 테러...“민항기 격추 시 공항 마비”
 - 7.11 언론은 지난 9일 항공보안학회와 인천공항경찰단이 ‘보이지 않는 위협, 신종 드론테러 예방과 공항 대응 전략’을 주제로 대테러·대드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법·제도 정비 등을 촉구했다 보도
 - ※ 항공보안학회 대테러·대드론 전략연구위원장은 ‘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만 526건의 미인가 드론이 탐지되는 등 국내 공항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했다’ 부언
- 파키스탄, 발루치스탄 테러 소탕 작전에서 수십명 사살
 - 7.11 외신은 파키스탄 보안군이 발루치스탄일대 합동 지상 및 공중 작전으로 「파키스탄 탈레반 운동(TTP)」 소속 테러리스트들을 39명을 사살하고 이어진 포위작전으로 13명을 추가 사살했다 보도
 - ※ 파키스탄 대통령은 ‘국민의 지지를 토대로 국가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테러리즘이라는 재앙을 근절할 것이다’ 강조했다 부언

○ 대구경철청, 국제대회 안전망 점검

- 7.12 언론은 106개국 1만1천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마스터즈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구경철청·국가정보원 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8개 기관이 참여한 테러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보도

※ 세계마스터즈육상선수권대회는 오는 8.22~9.3까지 13일간 열린다 부언

○ 韓, 부산 TP “한국형 드론 재난관리 모델, 모잠비크에 성공적 안착”

- 7.13 언론은 부산테크노파크가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과 한·아프리카개발협력기금(KOAFEC)의 지원을 받아 모잠비크 수도 마투포에서 ‘드론 기반 재난관리 솔루션 구축사업’ 성과보고회 및 드론 조종사 교육 수료식을 진행했다 보도

※ 「부산테크노파크」는 이번 사업이 현지 운영체계 구축 및 기술이전 등 현지 인력이 직접 드론 기술을 활용해 재난 대응 역량을 확보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부언

○ 韓 경찰, 「정이한」 피습 자작극 수사…이번주 송치

- 7.14 경찰은 ‘피습 자작극’ 혐의로 구속된 「정이한」前 부산시장 후보를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, 공모·금전 대가성 등을 보강수사하고 부친 회사의 선거 개입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발표

미 주

○ 미국, 47년 만에 시리아 ‘테러지원국’ 지정 철회

- 7.5 언론은 미국 정부가 지난 47년간 유지해 온 시리아의 테러지원국(SST) 지정을 철회하기로 의회에 통보했으며, 45일간의 의회 검토를 거쳐 공식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보도

※ 美 국무장관 「마코 루비오」는 “시리아가 국제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재건 기회를 가지며 국민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 것”이라고 부언

○ 美, ‘극좌테러 대응’ 논의하자며 60여 개국 초청

- 7.10 언론은 미국 국무부가 ‘초국가적 극좌 테러리즘의 재부상’을 주제로, 오는 16일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유럽·중남미 등 60여 개국에 초청장을 발송했으며, 한국은 명시되지 않았다 보도

※ 언론은 미국 행정부가 안티파(Antifa)를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, 일부 초청국은 회의 목적이 모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부언

○ 美, 트럼프 생일 UFC 행사 겨냥 드론 테러 모의...8명 기소

- 7.10 언론은 미국 법무부가 지난 6월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UFC 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, JD 뎀스 부통령,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을 겨냥해 드론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8명을 기소했다 보도

※ 미국 법무부는 이들이 범행 전 무기·탄약·전술 장비를 비축하는 한편, 사격·전투 훈련에 참여하고, 테러 후 도주 계획까지 세웠다고 부언

유럽

○ 친러 우크라이나 재벌 대상 폭탄테러 용의자, 총격 피살

- 7.7 언론은 친러 성향 우크라이나 재벌 가족을 겨냥한 폭탄테러의 핵심 용의자가 키이우 인근에서 총격으로 숨진 채 발견됐으며,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국방부 현직요원을 핵심 용의자 살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

○ 프랑스, 유대교 회당 인근 차량서 무기 발견

- 7.13 언론은 프랑스 파리 교외 유대교 회당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군용 무기가 발견돼 주민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며 프랑스 국가 대테러검찰청은 테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에 돌입했다 보도

※ '24. 5. 24 프랑스 남부 유대교 회당 앞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었다 부언

○ 佛, 파리 유대교 회당 인근 차량서 군용 무기 발견...주민 300명 대피

- 7.13 외신은 프랑스 북부 사르셀에 있는 유대교 회당 인근 도난 차량에서 소총·탄창·장전된 권총 등 군용 무기가 발견되어 주민 300명이 대피했으며, 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기도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다 보도

※ 프랑스 「DGSJ(내무안보총국)」는 사르셀에 있는 유대교 회당을 표적으로 삼은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상태라고 부언

○ 英, 원로 정치인 피살...테러 사건으로 수사

- 7.14 언론은 영국 우익 개혁당 원로 정치인 「앤 위디컴」 前 부장관 피살 사건에서 새 증거가 나오자, 영국 대테러수사본부가 수사를 맡아 테러·정치적 동기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보도

※ 언론은 위디컴 前 부장관이 지난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, 평소 사회적·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부언

역사 속 테러사건

불가리아, 이스라엘 여행객 대상 '폭탄테러' 발생

- '12.7.18 불가리아 부르가스 공항 주차장에서 이스라엘 여행객이 탑승한 관광버스를 겨냥한 폭탄테러가 발생, 여행객 등 6명이 숨지고 30여명 부상
 
- 이스라엘 「베냐민 네타냐후」 총리는 同테러 배후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'헤즈볼라'를 지목하며, 강력한 응징을 예고
- 한편, 일각에서는 당해 1월 유럽內 이스라엘人을 겨냥한 테러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同테러를 방지하지 못한 불가리아 당국을 비난
- 이후, '20.9.21 불가리아 법원은 궤석 재판(피고인 未출석)을 열고, 테러범인으로 기소된 「멜리아드 파라」 등 2명에게 종신형 선고
 - 同테러 배후로 레바논 무장정파 '헤즈볼라'를 지목하였으며, 당초 '자살 폭탄테러'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, 테러범들이 버스內 폭탄가방을 내려놓고 원격조종 장치로 폭발시킨 것으로 확인

테러 단체

< 헤즈볼라(Hezbollah) >

- (결성) '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계기로 시아파 이슬람 단체인 '이슬라믹 아말'과 '다와'당이 연합하여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美('97.10), 英('01.3), 캐나다('02.12)
- (핵심인물) 하산 나스랄라(사무총장), 나임 카셈
- (활동지역) 레바논 베이루트, 베카계곡 및 남부지역
- (활동수법) 국경지역 이스라엘軍 대상 게릴라戰 및 해외소재 유대교회당, 이스라엘 관광객 등 대상 폭탄테러 자행
- (주요테러) '83.10 美해병대 캠프에 폭탄차량 돌진(사망 241), '84.9 美대사관 공격(사망 20), '94.7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유대인센터 공격(사망 80)

